

佛家서 유래된 민화 옷으로 새롭게 ‘탄생’

성파 스님 옷칠 민화전, 10월 15일~21일 한국미술관서

“우리나라 그림의 대부분이 수묵화 담채화가 많아요. 하지만 민화 같이 강렬한 색채의 미술은 없었습니다. 민화의 역사를 180년이라고 하면 민화가 대두되었던 시기는 조선 후기라 볼 수 있죠. 이 시기는 조선 500년 동안 억울 정책이 가장 강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사를 할 수 없었던 불모나 단청장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 그린 것이 민화입니다.”

성파 스님은 우리 민화가 불교에서 왔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옷염색전 옷불화전 등 전통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성파 스님. 한국전통문화의 근원을 불교에서 찾고 있는 스님이 이번에도 도전한 분야는 바로 민화다. 옷으로 그려낸 민화를 선보이는 스님의 전시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10월 15일~21일 열린다. 스님은 지난 3년간 작업한 다양한 민화 작품 200여 점을 공개한다.

스님은 특히 민화의 근원을 사찰 벽화나 수미단 등 불교에서 찾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화를 민중들이 그렸다고 하지만 그

리기에는 그림이 너무 전문적이며 칼라는 단청과 유사하죠. 당시 민중들이 그런 물감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 예로 사찰벽화의 호랑이, 수미단 아래의 물고기 거북이 등의 문양은 민화의 양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민화는 분명 사찰문화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실은 미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옷을 재료로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낸 스님은 이번 전시 역시 옷으로 그려낸 호랑이 혼성도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민화에는 주로 까치 호랑이 등이 등장합니다. 이는 민화가 나오기 전 사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림이죠. 특히 호랑이는 민화의 대표적 그림이라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의 그림에서 그려지는 호랑이에 비해 우리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는 매우 온순하고 순화된 모습이 많아요. 이는 산신령화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전시에도 외강내유의 호랑이를 부드럽고 친화

적으로 그려냈죠.”

화려한 컬러를 주로 사용하는 민화에 옷을 사용하면 색감이 떨어지지 않냐는 질문에 스님은 옷칠을 하면 색감이 더 살아난다고 전한다. “옷 역시 불교문화에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주정자, 수미단, 바루 등 절에서 옷을 많이 사용했죠. 천년을 간다고 할 만큼 옷은 영구보존이 뛰어난 재료예요. 나무 쇠 천 어디에도 접착이 잘 되죠. 방향에도 강해 내구성이 좋아 천년을 보존

민화속 까치 호랑이 등 소재 사찰 미술서 왔을 가능성 높아 3년간 작업한 200여점 공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옷으로 다양한 공예작품을 만들어왔고 절집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민화에 사용해도 충분히 좋을 만큼 훌륭한 재료입니다.”

스님은 그동안 사경, 도자, 선묵화, 천연염색, 옷염색, 산수화, 옷불화 등 다양한 예



옷으로 그려낸 민화를 선보이는 성파 스님 전시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10월 15일~21일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민화가 불가에서 유래되었음을 알리고 싶다고 말한다.



‘혼성도’ 평 · 달팽이를 재밌게 표현했다.

술 세계를 표현해왔다. 각각 다른 장르처럼 보이지만 이는 유기적으로 엮여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스님의 예술은 분류가 없는 탈장르를 표방한다. “수행자로서 예술혼을 불태우는 그 자체가 곧 구도요, 수행입니다. 그것은 곧 불교사상과 우리문화의 전통을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통을 복원하는 것이 제 임무이자 끊임없이 작품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성파 스님. 그래서 스님은 앞으로 그동안 갖고 있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대중들에게 하나하나 공개할 것이라고 전한다. 한편, 성파 스님은 통도사 주지를 역

임하고 학교법인 영취학원 이사장,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통도사 서운암에서 주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옷칠 불화전, 성파 칠화전(스페인 마드리드), 성파 산수화전, 천연 옷염색전 등 다수의 전시를 가진 바 있다. (02)720-116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기와·나무에 새긴 부처님 생애

선운사 서각전에 작품 선보이는 도정 스님



고창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10월 19일까지 서각전이 열린다. 제주 제남서각회와 선운사 선운서각회의 작가들 작품 30점이 전시되는 자리다. 특히 이번 전시

에는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 스님(사진)의 서각 작품과 기와 작품이 소개되어 눈길을 끈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설산동자 구법계승, 김만덕 초상화 등의 기와작품과 빈자리 등의 서각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빈자리’는 나무결에 따라 그림을 그려 양각과 음각으로 새겨 부처님 깨달음을 표현해냈다.

“보리수 나무 옆으로 갠지스 강이 흐르고 그 옆으로 사슴과 코끼리 등의 동물을 넣어 녹야원임을 표현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하는 모습을 담아 수행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끊임없이 바라달행을 닦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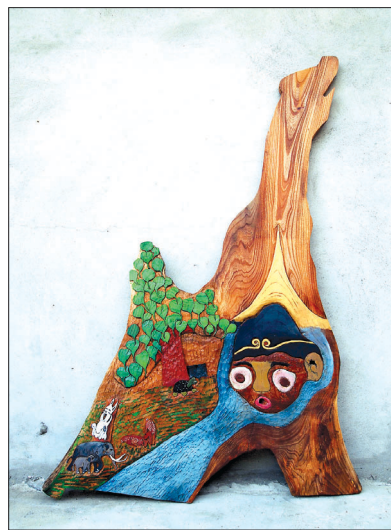
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을 부처님 손처럼 표현해서 가운데 손아래 공을 넣었는데 이는 아무리 신통방통해도 부처님 손을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무결을 따라 미얀마 웨다곤 황금대탑을 넣어 부처님 열반후 불교의 전파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스님은 부처님의 자취를 작품으

깨달음 표현한 ‘빈자리’ 등 10월 19일까지 만세루서

로 표현한다. “제가 미얀마에서 10여년 동안 수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기와와 나무에 부처님의 생애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흥미를 갖는 것을 보고 작품이 전법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기와에



도정 스님의 ‘빈자리’

새겨 100개의 작품을 완성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처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매년 20개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작품이 완성 되면 제주도 남선사에 전시관을 만들어 상설 전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혜숙 기자

영상 스터디 ‘붓다 석가모니’ 교계 시사회

청보리회 9월 25일 선우법당서

김재영 법사가 이끄는 ‘청보리’가 10부작 영상 스터디 ‘붓다 석가모니(Buddha Sakyamuni)’를 완성 9월 25일 우리함께 빌딩 선우법당에서 교계시사회를 가졌다. 이번 시사회에서는 10개의 영상 중 부처님 출가 성도 등의 영상 4편을 공개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불교문화장학교육원 남지심 원장, 민족사 문화대표, 니르바나 강행진 단장 등 교계 주요인사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붓다석가모니’는 부처님의 생애를 현지 답사사진과 자료사진과 함께 자막으로 구성 스터디 영상으로 만들어냈다. 김재영 법사는 “교계를 이끄는 많은 분들이 오서

서 영상을 감상하고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전법의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대중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물론, 재가단체의 법사를 선발해 각 단체별 스터디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불교문화장학교육원 남지심 원장은 ‘붓다석가모니’는 불법이 이룩과 세상에 어떻게 스며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재가단체에서 이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불교를 영상으로 스터디할 수 있는 새로운



붓다석가모니 교계 시사회 장면

형식의 창작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시발점으로 교계가 힘을 모아 내레이션 등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한 자료들을 연속적으로 완성해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보리회는 10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대중 공개시사회를 갖는다.

정혜숙 기자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접수 10월 10일까지

불교출판문화협회(이하 불출협)가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국내에서 출판 발행된 불교관련 저서 및 역서 등이다. 불출협은 공모작 중 ‘올해의 불서 10’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대상 1

종, 우수상 2종을 선정한다. 대상(1종)은 상패와 상금1000만원, 우수상(2종)은 상패와 상금 400만원이 수여된다.

공모신청 기간은 9월 29일~10월 10일 불교출판문화회에서 접수를 받으며, 서류는 기본 서지정보 및 개요(500자 이내) 1부

(자유 양식), 신청도서 총별 5부, 4권 이상 전집은 2집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내 불교출판문화협회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11월 말 교계연론 및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2014년 12월 9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한다. (02)-2011-1772

정혜숙 기자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